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1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6.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438명 추가 확진으로 총 5,766명, 서울시 106명 중 26명이 퇴원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확진자 29명 발생, 재앙의 시작인가
-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코로나19 대응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책 강화해야
- 정부, 생활치료센터 확충,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통한 확보가 시급
- 코로나19 감염 불안 및 대인기피 확산. 정신적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 상담 줄이어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스트레스·불안해소 심리상담' 실시

1. 발생 현황

코로나19 상황판

질병관리본부 '20.03.05. 00시 기준

	확진자	사망자	퇴원	의사환자**	검사중	결과음성	자가격리자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106	0	26	26,800	4,136	22,664	4,292	1,997	2,295
전국	5,766	35	88	140,775	21,810	118,965	-	-	-
전세계	95,446	3,286	-	-	-	-	-	-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05. 16시 기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서울시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기반 작성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연경 연구원/ ☎ 02-2276-8792 (unirtv@seoulmc.or.kr)

- 서울시 전일 대비 1명 추가 환자 발생, 총 106명 보고됨
 - 입원환자 80명, 격리해제 26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103명
 - 국내 사망자는 35명으로 치명률은 0.6%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기준 서울시 사망자 없음
 - 서울시 신규 확진자의 강남구 소재 회사에서 총 3명(서울시 확진자 2명 포함) 확진 판정 받았으며, 전 직원 전수조사 중임 (15명/80명 검사시행, 결과 보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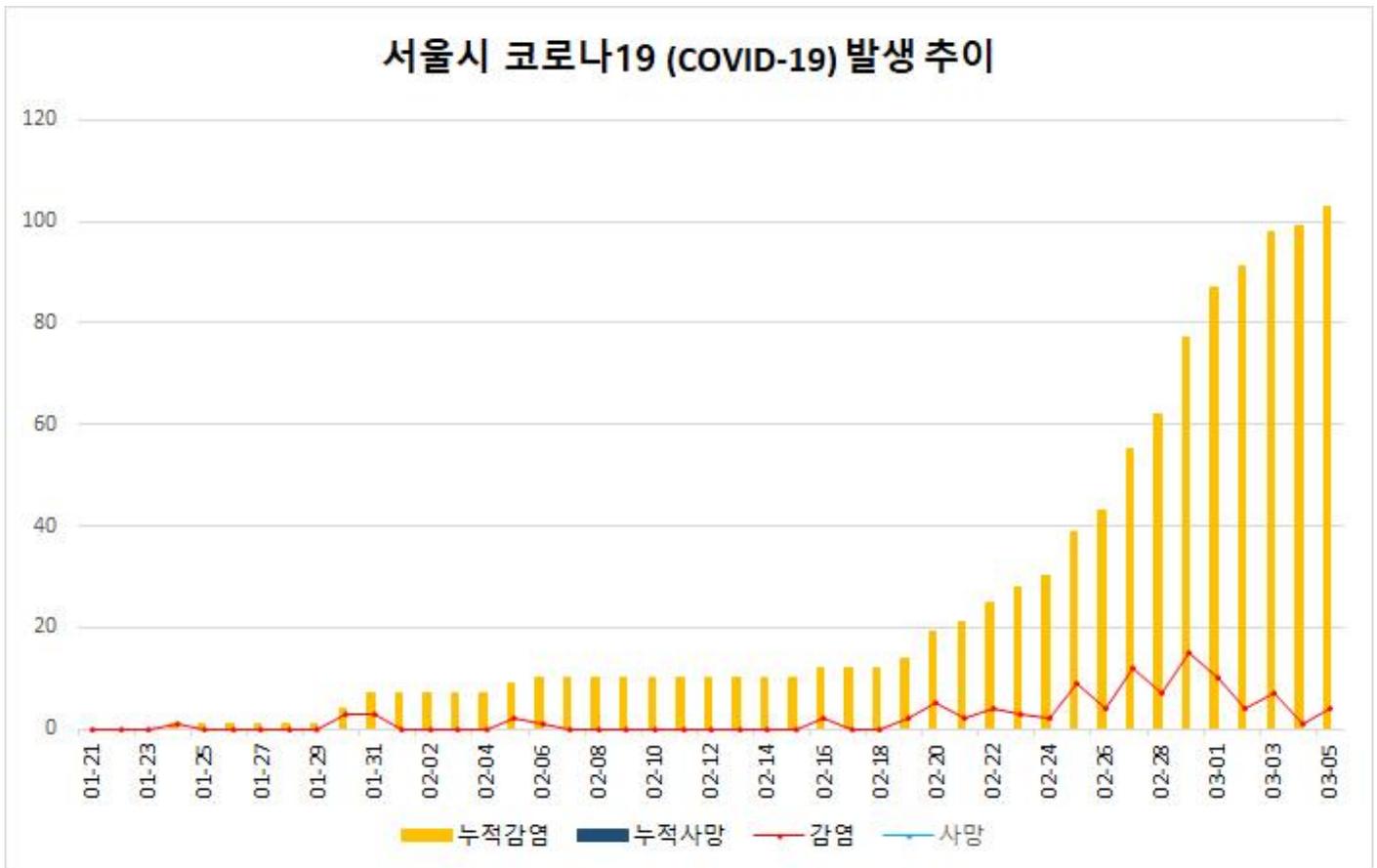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5. 16시 기준)

	구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자가격리현황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계	격리 중	격리 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계	감시중	감시 해제	진료	검체검사	X-ray
서울시	3.4.(수) 16시 기준	105	79	26	24,708	4,414	20,294	4,245	2,243	2,002	2,211	1,464	21
	3.5.(목) 16시 기준	106	80	26	26,800	4,136	22,664	4,292	1,997	2,295	1,414	998	29
	증감	1	1	-	2,092	▲278	2,370	47	▲246	293	797 (▲56.3%)	466 (▲46.6%)	8 (27.5%)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출처: 의료방역반 일일상황보고
(3.3. 18:00 기준)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2020.3.5.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추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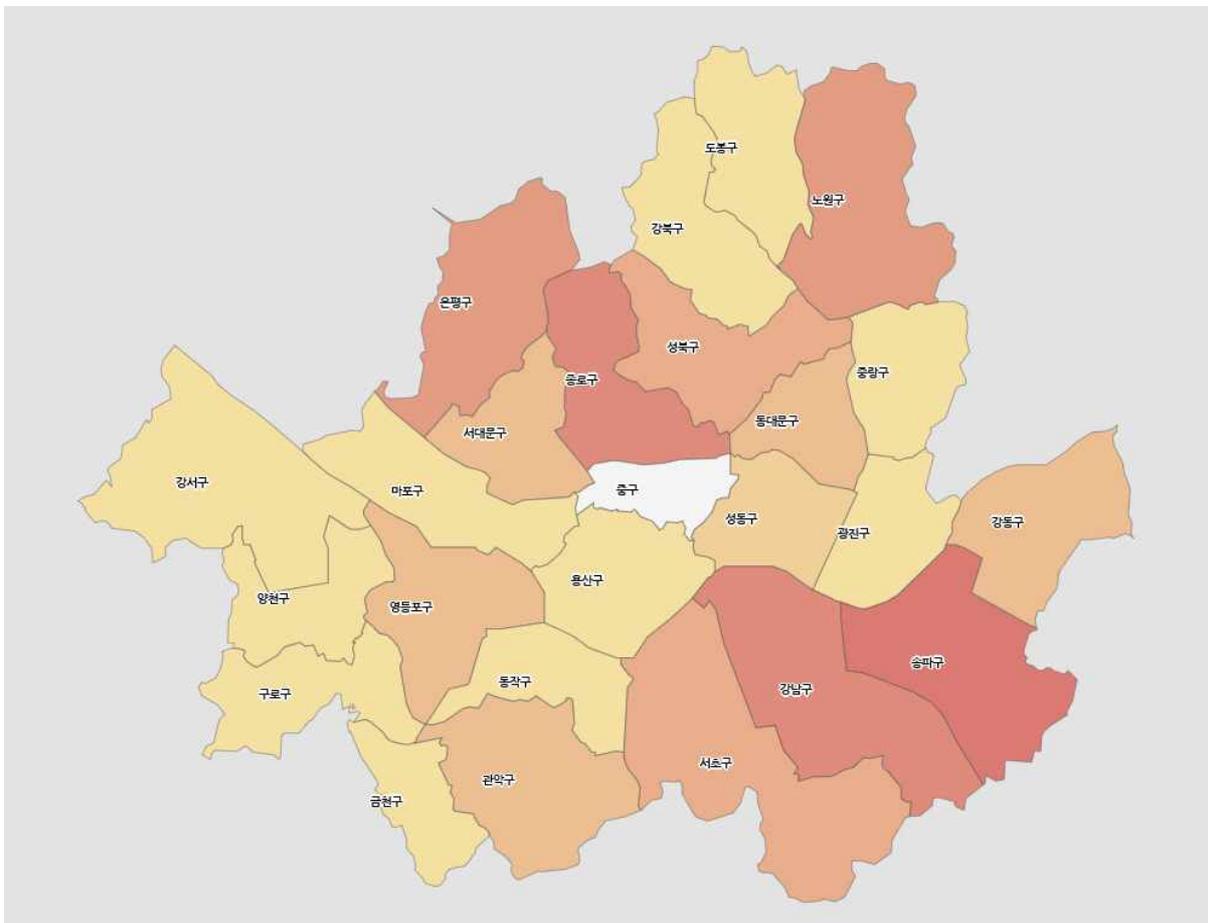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106명(종로11, 성동3, 동대문4, 중랑2, 성북5, 노원8, 은평8, 서대문4, 마포1, 양천2, 강서2, 구로1, 동작1, 관악4, 서초5, 송파12, 강동4, 강남10, 광진2, 영등포4, 도봉1, 금천1, 용산1, 강북1, 기타9(타시도 이관))
- 총 24개구에서 확진환자 발생함.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송파	종로	강남	노원	은평	성북	서초	관악	강동	서대문	영등포	동대문	성동	양천	중랑	강서	광진	동작	강북	용산	마포	구로	도봉	금천	중구	기타	계
확진환자	12	11	10	8	8	5	5	4	4	4	4	4	3	2	2	2	2	1	1	1	1	1	1	1	-	9	106
환자	-	-	1	-	-	-	-	-	-	-	-	-	-	-	-	-	-	-	-	-	-	-	-	-	-	-	1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 서울시 확진자 건강상태(2020.3.5. 18:00 기준)

(단위 : 건)

환자구분			상태구분 (퇴원환자제외)					
계	환자	의료인	소계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	*확인중
106	104	2	80	65	11	3	1	0

*확인중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로부터 수합요청

● 서울시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2020.3.4. 18:00 기준)

(단위 : 건)

합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79	42	33 ¹⁾	6	3 ²⁾	37	5	6	5*	21

1)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증가(1개소): 32 → 33개소, 서초구

2)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설치(3개소): 은평병원, 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3.3.)

※ 어린이·은평병원(2개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로 전환되어 국·공립병원 집계에서 제외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4. 18:00 기준)

(단위: 개소)

자치구 선별진료소			※ 코로나19 상담소 5개소 중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합 계	보건소 내	보건소 외	
34	33*	1	

* 25개구 중 성북·금천·노원·은평·송파·중랑·강북구 2개 운영 그 외 자치구 1개 운영 (서초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 자치구 보건소 운영 현황(2020.3.3. 18:00 기준)

(단위 : 건)

날짜	진료		검체		X-ray	
	금일	누 계	금일	누 계	금일	누 계
2020.3.3.	1,414	30,577	998	16,070	29	933

● 의료기관 운영 현황(2020.3.4. 18:00 기준)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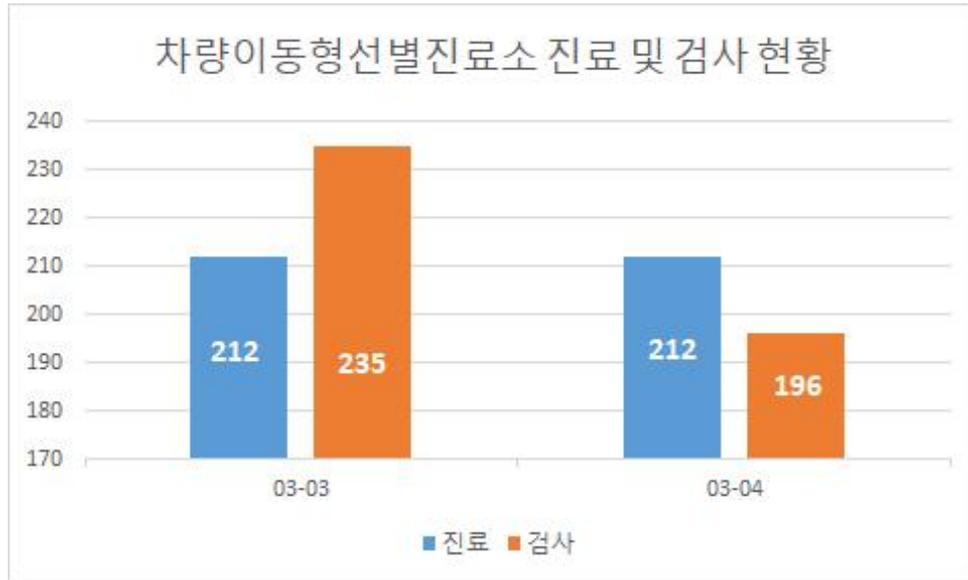
구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계	1,590	25,470	497	9,211	
국가지정	80	4,433	62	2,019	
지역거점	167	4,233	165	2,009	
국공립병원	46	1,583	13	1,259	
민간병원	1,297	15,221	257	3,924	

* 국공립병원의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은 3.3부터 차량이동선별진료소로 변경, 북부병원은 2.29부터 미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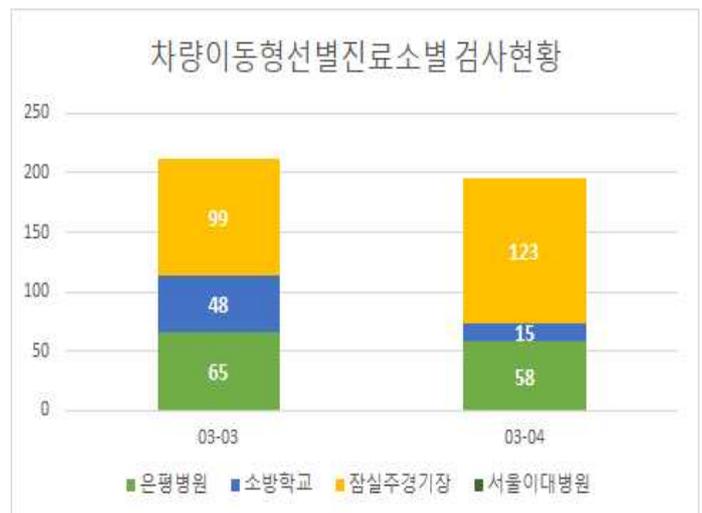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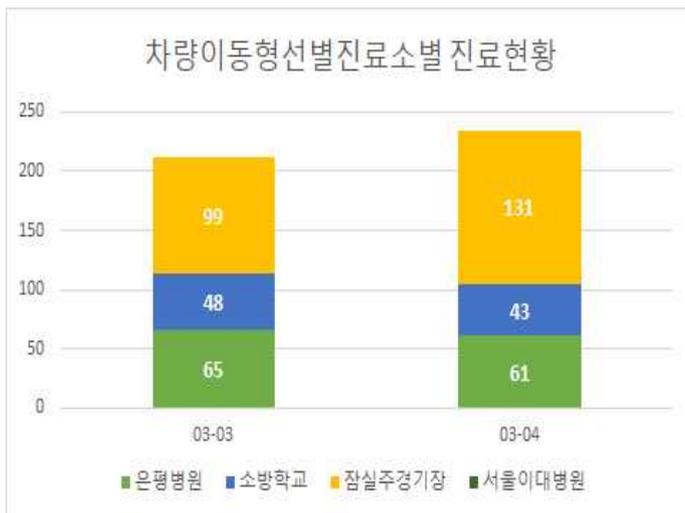
● 차량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현황(2020.3.4. 18:00 기준)

(단위 : 건)

구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계	235	447	196	401	
은평병원	61	126	58	123	
소방학교	43	91	15	57	
잠실주경기장	131	230	123	221	
이대서울병원	예정	예정	예정	예정	3.5. 개소예정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 현황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별 진료 및 검사 현황

-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 이용 건수는 잠실주경기장(송파구), 은평병원(은평구), 소방학교(서초구) 순서임
- 서울이대병원(강서구)은 금일(3.5) 개소하여, 3월 6일부터 현황파악 예정임
- 자치구 선별진료소와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의 이용현황은 추후 비교예정임
- 총 진료 건수와 총 검사 건수에 차이가 있음. 진료를 시행하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례의 원인 조사가 필요함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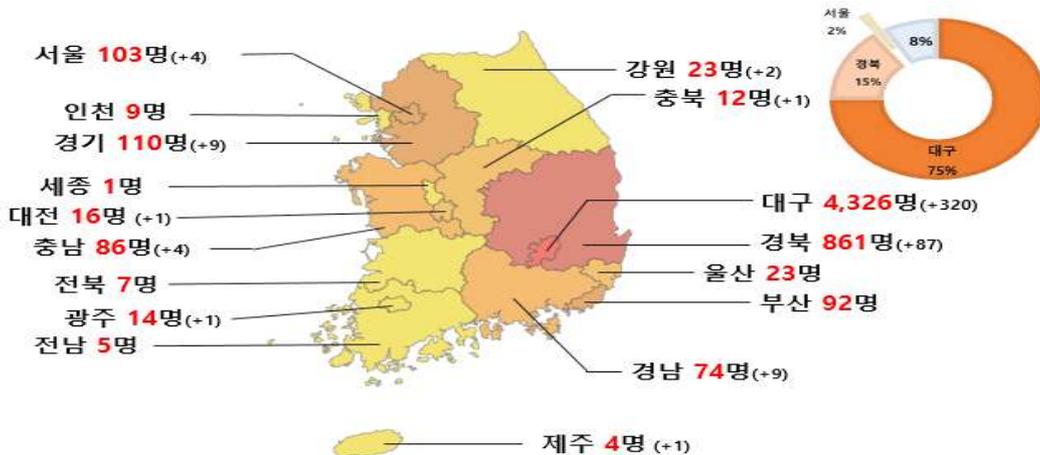
- 국내 확진자는 5,766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438명 추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는 35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61%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69.4%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30.6%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5.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4.(수) 0시 기준	136,707	5,328	41	5,255	32	131,379	28,414	102,965
3.5.(목) 0시 기준	146,541	5,766	88	5,643	35	140,775	21,810	118,965
증감	9,834 (6.7%)	438 (7.6%)	47 (53.4%)	388 (6.9%)	3 (8.6%)	9,396 (6.7%)	▲6,604 (▲30.3%)	16,000 (13.4%)

- 새롭게 확진된 환자 438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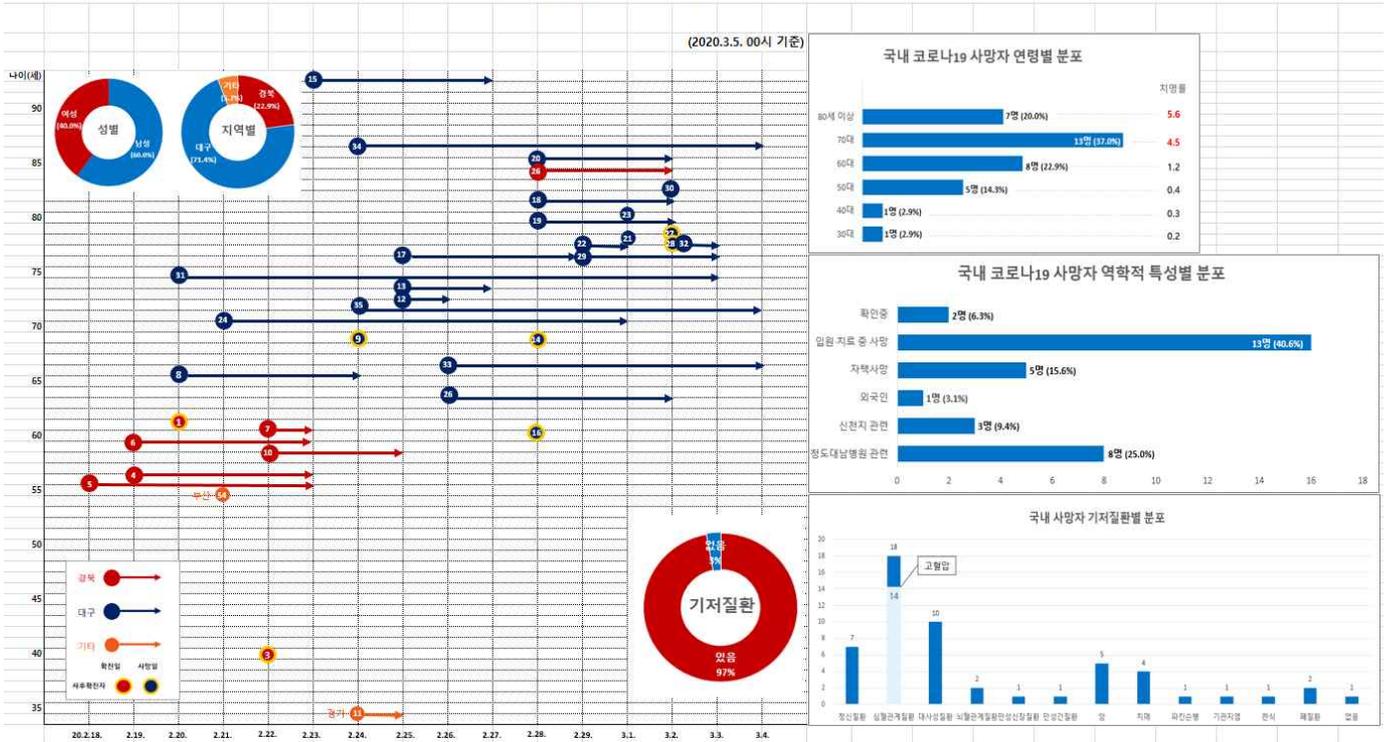
지역	확진환자			주요 기타 유행
	누계(명)	신규(명)	(%)	
서울	103	(+4)	1.8	은평성모병원(14명), 성동구아파트(13명), 종로구(10명), 신천지(2명) 관련 등
부산	92	(-1)	1.6	온천교회(33명), 확진자 접촉자(23명), 신천지(11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대구	4,326	(+320)	75.0	신천지(3,013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인천	9	-	0.2	신천지(1명),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광주	14	(+1)	0.2	신천지(7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대전	16	(+1)	0.3	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1명) 관련 등
울산	23	-	0.4	신천지(11명) 관련 등
세종	1	-	0.0	신천지(1명) 관련 등
경기	110	(+9)	1.9	신천지(18명), 수원생명샘교회(10명), 기존 해외유입(6명) 관련 등
강원	23	(+2)	0.4	신천지(11명) 관련 등
충북	12	(+1)	0.2	신천지(4명), 확진자 접촉자(1명) 관련 등
충남	86	(+4)	1.5	천안시 운동시설(81명) 관련 등
전북	7	-	0.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전남	5	-	0.1	신천지(1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경북	861	(+87)	14.9	신천지(348명), 청도대남병원(115명), 성지순례(49명), 봉화 푸른요양원(36명), 칠곡 밀알사랑의집(24명), 경산 서민요양원(13명), 한도주력사(4명), 김천소취원(3명), 경산 열람노인요양원(3명), 강산 침플케어센터(2명) 관련 등
경남	74	(+9)	1.3	신천지(22명), 거창교회(10명), 한마음창원병원(6명), 부산 온천교회(2명) 관련 등
제주	4	(+1)	0.1	-
총계	5,766	(+438)	100.0	전국 환자 중 신천지 관련 3,452명(59.9%)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2020.3.5.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COVID-19) 사망자 현황 분석



국내 코로나19 (COVID-19) 사망자 현황 분석

- * 국내 사망자는 **60세 이상이 79.9%를 차지**하며, 사망자들은 **확인 날로부터 평균 4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 국내 사망자는 35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61%**로 보고되었으며, **금일 사망한 3명 모두 대구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33번째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첫 번째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로 확인됨.

✓ **성별·지역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남성이 21명(60.0%)**으로 여성 14명(40.0%)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대구 27명(71.4%), 경북 6명(22.9%)**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기타 2명(5.7%)**은 각각 부산, 경기지역에서 발생함.

✓ **연령별 분포 현황**

- * 연령대는 **70대에서 13명(3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대 8명(22.9%), 80세 이상 7명(20.0%), 50대 5명(14.3%)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치명률은 124명의 확진자 중 7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5.6%**, 70대가 4.5%로,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 **기저질환별 분포 현황**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5명 중 **97%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혈관계질환이 18명(21.4%)**, 그 중 **고혈압이 14명(4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사성질환 10명(28.6%), 정신질환 7명(20.0%), 암 5명(14.3%)** 순으로 확인됨 (기저질환 중복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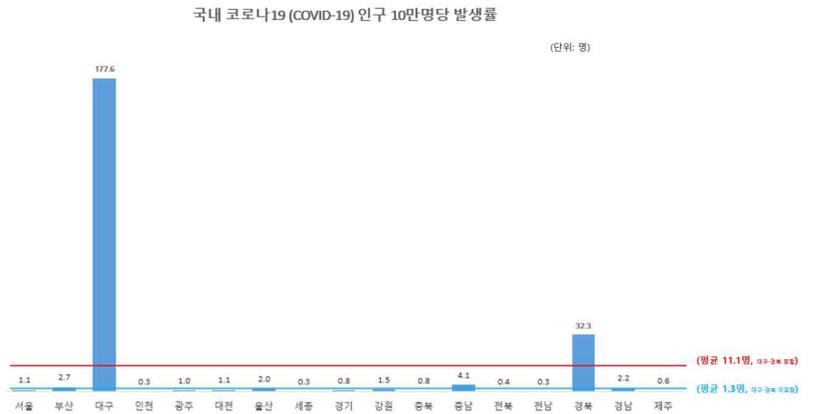
✓ **사망관련 역학적 특성**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역학적 관계로 보면 초기 사망자의 경우 **청도대남병원 및 신천지대구교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3.5. 00시 기준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 관련 13명(40.6%), 청도대남병원 관련 8명(25.0%), 자택사망 5명(15.6%), 신천지 관련 3명(9.4%)** 순으로 나타남 (추가 조사중인 사례도 있으므로 변동 가능).
- *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 보고서에 의하면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면역계에 손상이 되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됨.
- * 더불어, **기저질환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19에 취약**하며, 특히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당뇨환자,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장기이식환자**는 더 위험하다고 확인됨.

- 국내 코로나19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발생률 (2020.3.5.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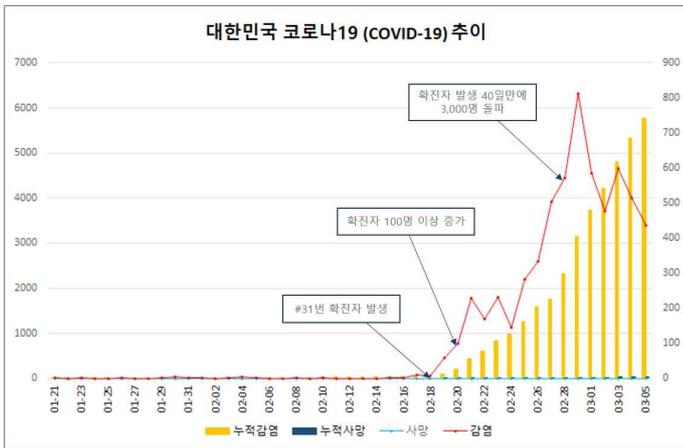
NO.	지역	사망자	치명률	발생률
1	대구	27	0.58	177.6
2	경북	6	0.93	32.3
3	경기	1	0.91	0.8
4	충남	-	-	4.1
5	부산	1	1.09	2.7
6	경남	-	-	2.2
7	울산	-	-	2.0
8	서울	-	-	1.1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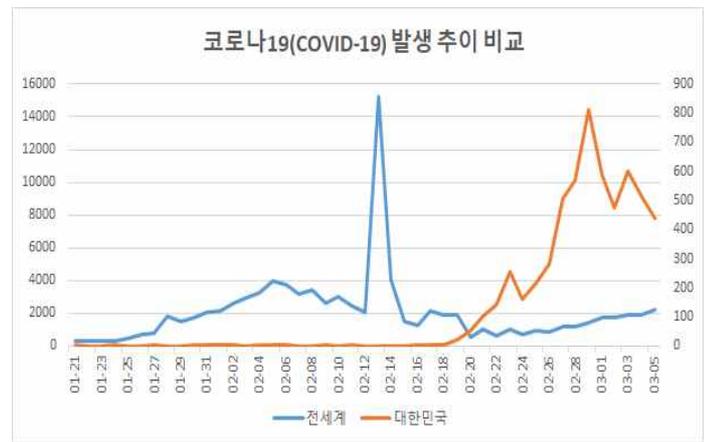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인구 10만명당 확진환자 수

- 국내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2020.3.5.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코로나19 발생 추이 비교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5,766명으로 보고되었으나 일별 신규 환자 수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임.
 * 일별 신규 확진환자 수는 2일 600명, 3일 516명, 4일 438명이 각각 추가 집계되어 3일 연속 감소함.

● 전 세계 발생 현황

- 2,274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95,446명(전일 대비 2.44%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3,286명(83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3.44%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81개에서 84개(*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로 증가됨.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5. 16: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1	중국	80,409	3,012	30	알제리	17	0	59	헝가리	2	0
2	한국	5,766	37	31	산마리노	16	1	60	인도네시아	2	0
3	이탈리아	3,089	107	32	베트남	16	0	61	이집트	2	0
4	이란	2,922	92	33	덴마크	15	0	62	아프가니스탄	1	0
5	일본	331	6	34	이스라엘	15	0	63	안도라	1	0
6	프랑스	285	4	35	레바논	13	0	64	아르헨티나	1	0
7	독일	262	0	36	오만	12	0	65	아르메니아	1	0
8	스페인	228	2	37	크로아티아	10	0	66	도미니카공화국	1	0
9	미국	159	11	38	에콰도르	10	0	67	요르단	1	0
10	싱가포르	112	0	39	마카오	10	0	68	라트비아	1	0
11	홍콩	105	2	40	체코	8	0	69	리히텐슈타인	1	0
12	스위스	90	0	41	그리스	8	0	70	리투아니아	1	0
13	영국	85	0	42	카타르	8	0	71	룩셈부르크	1	0
14	쿠웨이트	56	0	43	벨라루스	6	0	72	모나코	1	0
15	노르웨이	56	0	44	아일랜드	6	0	73	모로코	1	0
16	호주	52	2	45	핀란드	6	0	74	나이지리아	1	0
17	스웨덴	52	0	46	포르투갈	6	0	75	북마케도니아	1	0
18	말레이시아	50	0	47	파키스탄	5	0	76	폴란드	1	0
19	바레인	49	0	48	멕시코	5	0	77	사우디아라비아	1	0
20	태국	47	1	49	브라질	4	0	78	슬로베니아	1	0
21	대만	42	1	50	세네갈	4	0	79	튀니지	1	0
22	네덜란드	38	0	51	루마니아	4	0	80	우크라이나	1	0
23	이라크	35	1	52	필리핀	3	1	81	캄보디아	1	0
24	캐나다	34	0	53	아제르바이잔	3	0	82	네팔	1	0
25	오스트리아	29	0	54	칠레	3	0	83	스리랑카	1	0
26	인도	29	0	55	조지아	3	0	84	일본 크루즈	706	6
27	아랍에미리트	27	0	56	뉴질랜드	3	0	합계		95,446	3,286
28	아이슬란드	26	0	57	러시아	3	0				
29	벨기에	23	0	58	에스토니아	2	0			치명률 3.44%	

No.	국가 및 지역	사망자 수	치명률	발생률
1	미국	11	7.19	0.05
2	호주	2	3.84	0.21
3	중국	3,012	3.75	5.77
4	이탈리아	107	3.46	5.11
5	이란	92	3.15	3.57
6	대만	1	2.38	0.18
7	태국	1	2.33	0.06
8	일본	6	1.51	0.26
9	프랑스	4	1.40	0.43
10	한국	37	0.64	11.17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5. 16: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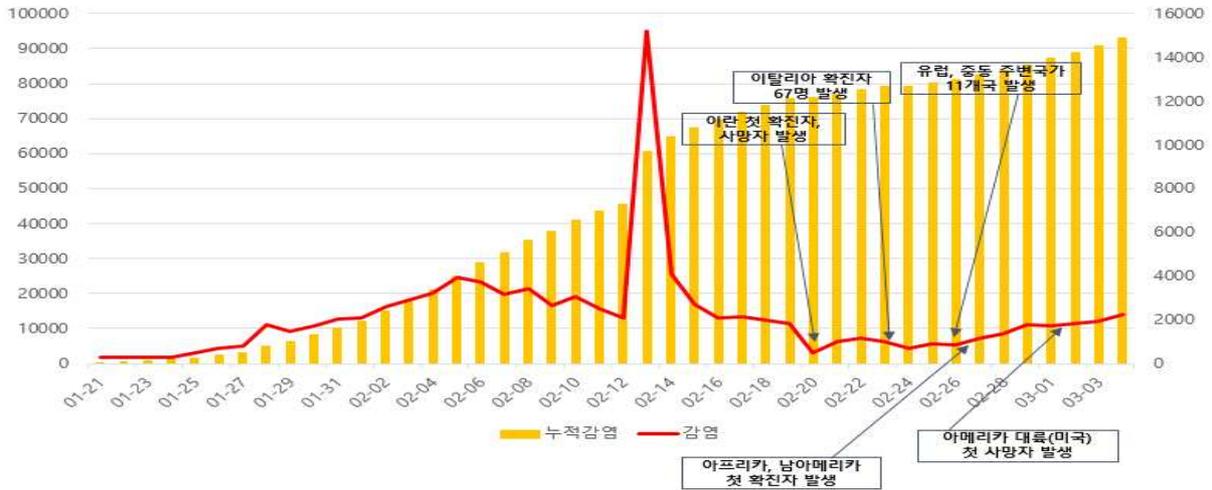
(출처) 위키피디아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생률
전 세계	93,090	3,198	3.44	1.20
중국	80,422	2,984	3.71	5.60
중국 외 국가	12,668	214	1.69	0.20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전 세계 코로나19 (COVID-19) 추이



전 세계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WHO,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게 민첩한 대응 능력 강조

- *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의 확진자가 발생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게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조기 격리 조치를 보장할 것을 요청함.
- * 첫 확진자, 첫 집단, 첫 지역감염 증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
- * 동남아시아 11개 나라 중 5개의 나라에서 확진자 발생하였음. 코로나19의 위험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높음.
- * 건강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국가가 준비해야 하는 최우선 3가지라고 함.

(출처) WHO (<https://www.who.int/southeastasia/news/detail/04-03-2020-who-emphasizes-on-agile-response-capacities-as-south-east-asia-region-confirms-more-covid-19-cases>)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12,668명**(전일 대비 2,102명 추가, 19.9%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214명(전일 대비 48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1.69%(전일 1.57%)확인됨.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 인도에서 확진자 29명 발생함.**

- * 인도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킴.
- * 보건 장관은 많은 사례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여행객들과 관련이 있다고 함.
- * 국가는 주의를 권고했지만 경보를 발생하지는 않음.
- * 이탈리아, 이란, 한국, 일본의 시민들에게 비자 부여를 중단함.
- * 여행중인 22명의 이탈리아인 중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
- * 최소 215명이 이탈리아 관광 팀(확진자 16명)과 관련이 있음. 현재 93명의 검사 중 60명 음성이었으며, 122명의 의심 사례를 검사 중임. (출처) BBC (<https://edition.cnn.com/asia/live-news/coronavirus-outbreak-03-05-20-intl-hnk/index.html>)

✓ **미국 - 코로나19 사망자 11명 발생함.**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CDC](#)

- * 확진자 159명으로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에서 발생함.
- * 워싱턴 주 33개 학교 중 26개의 학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았으며, 학생의 결석률은 20%라고 밝힘.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 워싱턴주의 사망자는 집단감염이 확인된 장기요양시설이 있는 킹카운티에서 발생함. 시설과의 연관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음.
- * 캘리포니아의 사망자는 플레이서카운티에서 발생함. 고령이지만 보통의 건강상태였음.
- * 미 보건복지부(HHS)는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미국 의료체계에서 1년간 필요한 마스크는 최대 35억개로 추정됨(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수요만 산출)을 밝힘.
- * 미 국가전략비축량의 현재 마스크는 수요량의 1.2%에 불과한 상태임.

✓ **이란 - 확진자 835명(총 2,336명), 사망자 11명(총 77명) 발생함.**

- * 확진자 2,922명, 사망자 92명
- * 보건부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 특수 시설을 갖춘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의과대학장 자릴 코우파에자데 박사는 백신 개발 작업을 시작했으며, 테스트 키트를 생산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함.
- * 보건부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평가 웹사이트를 시작함. 로그인하여 질문에 대답한 후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이 보건부의 후속 조치를 받게 됨.

✓ **이탈리아 - 코로나19 사망자 107명**



이탈리아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 확진자 3,089명(전일대비 587명, 23.5%상승), 사망자 107명 발생함.
- * 북부에 전파된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최초 전파 시점을 대략 확인함. 지난 달 21일에 첫 감염자 공식 보고 몇 주 전부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음을 추정함. 2월 초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 전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뒷받침 함. (출처) MBC뉴스 <https://news.mbc.com/revs/2020/world/article/56688503260.html>
- * 총리주재로 여린 내각회의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자 모든 학교에 휴교령(5일부터 10일 동안) 내림.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 한 달간 중단됨.
- * 모든 집회·모임 금지하고 다중시설도 잠정폐쇄 조치
- *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악수나 볼키스, 포옹 등의 인사를 자제할 것을 국민에게 권고함.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서태평양						
한국	5,328	516	32	4	*지역 전파	0
일본	284	16	6	0	*지역 전파	0
싱가포르	110	2	0	0	*지역 전파	0
말레이시아	50	21	0	0	*지역 전파	0
호주	43	10	1	0	*지역 전파	0
베트남	16	0	0	0	*지역 전파	20
필리핀	3	0	1	0	해외 유입	28
뉴질랜드	2	0	0	0	해외 유입	1
캄보디아	1	0	0	0	해외 유입	36
유럽						
이탈리아	2,502	466	80	28	*지역 전파	0
프랑스	212	21	4	1	*지역 전파	0
독일	196	39	0	0	*지역 전파	0
스페인	151	37	0	0	*지역 전파	0
영국	51	12	0	0	*지역 전파	0
스위스	373	7	0	0	*지역 전파	0
노르웨이	32	7	0	0	*지역 전파	0
네덜란드	28	10	0	0	*지역 전파	0
오스트리아	24	6	0	0	해외 유입	0
스웨덴	24	9	0	0	*지역 전파	0
아이슬란드	16	7	0	0	해외 유입	0
이스라엘	12	2	0	0	*지역 전파	0
크로아티아	9	1	0	0	*지역 전파	0
벨기에	8	0	0	0	해외 유입	1
덴마크	8	3	0	0	*지역 전파	0
산마리노	8	0	0	0	*지역 전파	1
핀란드	7	0	0	0	*지역 전파	1
그리스	7	0	0	0	*지역 전파	2
체코	5	2	0	0	해외 유입	1
루마니아	4	1	0	0	*지역 전파	0
아제르바이잔	3	0	0	0	해외 유입	3
조지아	3	0	0	0	해외 유입	3
러시아	3	0	0	0	해외 유입	1
에스토니아	2	1	0	0	해외 유입	0
아일랜드	2	1	0	0	해외 유입	0
포르투갈	2	0	0	0	해외 유입	1
안도라	1	0	0	0	해외 유입	1
아르메니아	1	0	0	0	해외 유입	2
벨라루스	1	0	0	0	해외 유입	5
라트비아	1	0	0	0	해외 유입	1
리투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5
룩셈부르크	1	0	0	0	해외 유입	2
모나코	1	0	0	0	조사중	3
북마케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6
폴란드	1	1	0	0	해외 유입	0
우크라이나	1	1	0	0	해외 유입	0
동남아시아						
태국	43	0	1	0	*지역 전파	1
인도	6	1	0	0	해외 유입	0
인도네시아	2	0	0	0	*지역 전파	2
네팔	1	0	0	0	해외 유입	40
스리랑카	1	0	0	0	해외 유입	37
중동						
이란	2,336	835	77	11	*지역 전파	0
쿠웨이트	56	0	0	0	해외 유입	2
바레인	49	0	0	0	해외 유입	1
이라크	31	5	0	0	해외 유입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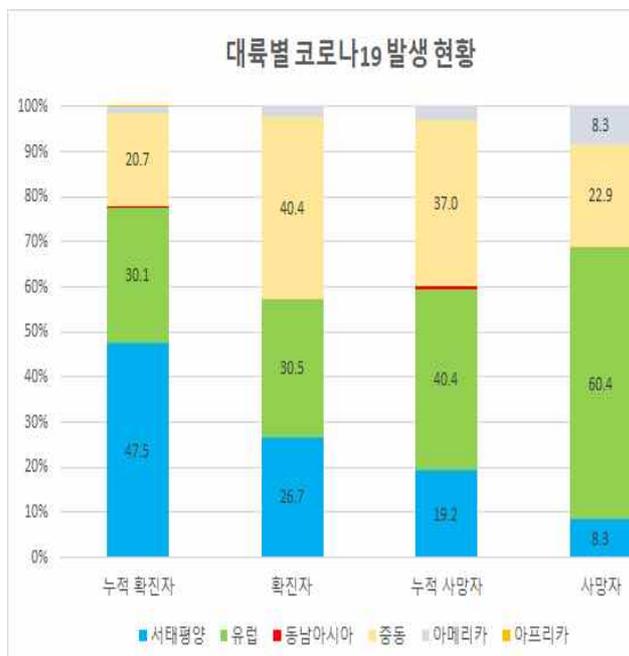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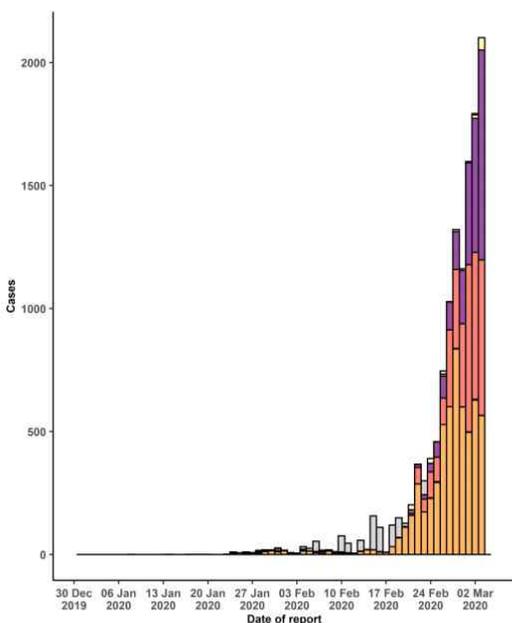
중국 외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아랍에미리트	27	6	0	0	*지역 전파	0
레바논	13	0	0	0	*지역 전파	1
오만	12	6	0	0	해외 유입	0
카타르	8	1	0	0	해외 유입	0
파키스탄	5	0	0	0	해외 유입	1
이집트	2	0	0	0	해외 유입	2
아프가니스탄	1	0	0	0	해외 유입	8
요르단	1	0	0	0	해외 유입	1
모로코	1	0	0	0	해외 유입	1
사우디아라비아	1	0	0	0	해외 유입	1
튀니지	1	0	0	0	해외 유입	1
아메리카						
미국	108	44	6	4	*지역 전파	0
캐나다	30	3	0	0	*지역 전파	0
에콰도르	7	1	0	0	*지역 전파	0
멕시코	5	0	0	0	해외 유입	2
브라질	2	0	0	0	해외 유입	3
아르헨티나	1	1	0	0	해외 유입	0
칠레	1	1	0	0	해외 유입	0
도미니카공화국	1	0	0	0	해외 유입	2
아프리카						
알제리	5	0	0	0	*지역 전파	1
나이지리아	1	0	0	0	해외 유입	5
세네갈	1	0	0	0	해외 유입	1
기타						
일본 크루즈	706	0	6	0	*지역 전파	2
총 합	12,668	2,103	214	48		

* 현재 대한민국은 입국제한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국(홍콩, 마카오)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전파 국가 32개로(전일 30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감염경로는 해외유입에서 지역 전파로 변경) 증가하였음.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중국 발생 현황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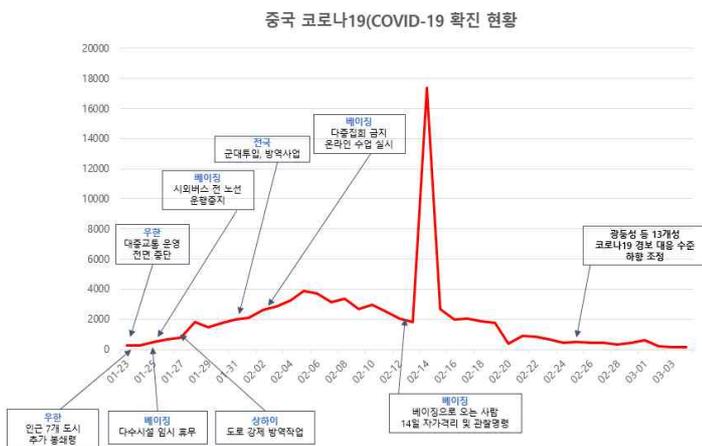
- * 80,409명(전일 대비 139명 추가, 0.17%증가)으로 보고됨.
- * 이틀째 신규 확진자 수 100명 대에 머무름.
- * 사망자 3,012명 (전일 대비 31명 추가)으로 치명률 3.75%로 확인됨.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5.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 3.(화) 9시 기준	80,270	2,981
3. 4.(수) 9시 기준	80,409	3,012
증감	13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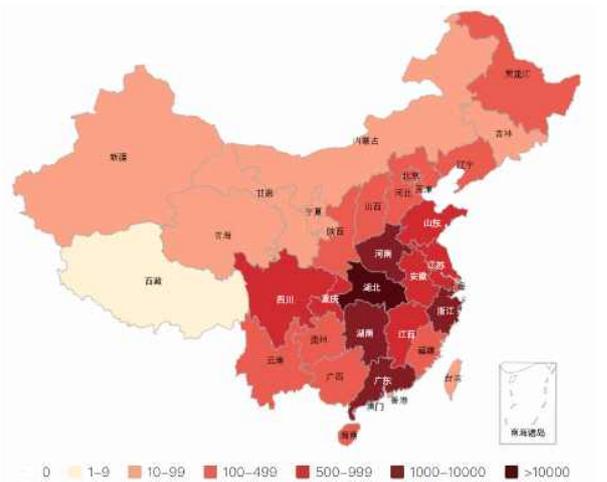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지역	인구수 (10,000s)	일일현황			누적현황	
		확진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후베이성	5,917	115	52	37	67,332	2,871
광둥성	11,346	0	0	0	1,350	7
허난성	9,605	0	0	0	1,272	22
저장성	5,737	0	2	0	1,213	1
후난성	6,899	0	0	0	1,018	4
베이징	2,154	3	11	0	414	8
상하이	2424	0	19	0	338	3
홍콩	745	0	0	0	100	2
대만	2359	1	0	0	42	1
마카오	66	0	0	0	10	0
기타	103,995	1	61	1	7,333	65
총 합	148,823	120	143	38	80,422	2,984



중국 코로나19 확진 현황 (2020. 3. 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분포 (출처) <http://ncov.dxy.cn/>

- * 역외 유입자 중 확진 환자 75명으로 확인됨
- * 중국 전역에 강제 격리된 한국인이 1,100명을 넘음.

2. 정책 동향

서울시

서울소식 내 새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장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스트레스·불안해소 심리상담' 실시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최근 일상생활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가동함
 - * 서울시는 그동안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심리상담을 5일(목)부터 서울시내 모든 직종의 노동자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힘(종료 시기는 코로나 19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 코로나 확산으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정서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재기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리상담·치유서비스를 확대하게 됨
- 특히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방문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선 집중적인 관리를 펼침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02-722-2525)에 간단한 상황과 정보를 알리고 상담이 편한 시간을 정하면, 해당 시간에 배정된 전문상담사가 노동자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임
 - * 상담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방문에 따른 시간소요 등 불편을 덜기 위해 방문이 아닌 전화로 진행 됨
 - * 센터 상담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모든 상담은 무료임
 - * 신청 노동자에게 총 2회 전화로 상담을 실시, 향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코로나 사태 진정국면에 접어 든 이후 '치유프로그램(1인 최대 10회)' 참여 연계 예정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버스정류장 방역소독 실시

- 서울시는 '20.3.3.(화)부터 버스정류소 승차대 4,081개소에 대하여 주1회 집중 방역소독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 * 서울시내 버스정류소 승차대는 가로변 3,170개소, 중앙차로 884개소, 환승정류소 27개소 등 총 4,08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민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이 접촉 가능한 버스정류소 승차대도 방역이 필요하게 되어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함
-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를 우선적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소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방역소독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출·퇴근 직후(10시, 20시) 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할 계획임
- 서울시는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감염 시작단계부터 차고지 방역과 시내·마을버스 내부 손잡이, 의자, 기둥 등 승객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대해 1일 4~6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 중임

버스정류소 승차대 방역소독 현장



●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 고발 조치

-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5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음
-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침
 - *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음
 - *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임
- 서울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 가격인상 경고메일 발송, 현장점검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임
 - *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임
-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임
 - *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음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 추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고 밝힘
- 경산시는 대구시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262명)의 절반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3.3. 기준)
 - * 경산시는 3월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 환자 중 73%(89명 중 65명)를 차지
 - * 3월 3일 기준 경북의 전체 확진자 중 경산시의 비중은 40% (725명 중 291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 31번과 접촉한 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 이외 신도와 교육생 245명 능동감시 중이며, 이들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선별진료소 3개소 외에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 검토,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경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약 70실)로 설치 예정
- 경산시 확진환자 조기 발견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하여 코로나19 유행 통제, 지역 확산 억제 예정임

●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8시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총 584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힘
 - * 584명 중 41명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543명은 자가격리 중 센터에 입소한 경증확진자임
- 전날 대비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211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605명*) 대비 96% 입소를 완료함
 - * 대구1 센터 : 160명, 경북대구1 센터 210명, 경북대구2 센터 : 235명
- 3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12명, 간호사 22명, 간호조무사 26명 등 총 60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각각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음
- 3월 5일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학교 인재원)와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칠곡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가 추가 개소하여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는 총 5곳을 운영할 예정임
 - *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협진하는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는 99명,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에는 100명의 경증환자 입소가 가능하며, 3월 5일 오전부터 이송 진행됨
- 3월 6일은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칠곡 대구은행 연수원)가 개소하며,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구미 LG 디스플레이 기숙사,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 공중보건역사 배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사회 환자치료 및 방역 업무 지원 위해 2020년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역사 742명 전원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기로 했음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각각 320명, 150명의 공중보건역사를 배정하고, 대구·경북 외 15개 시도에도
 - ▲확진자 수,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공중보건역사 배정함
-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역사는 3월 5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 ▲환자 진료(의료기관, 생활지원센터 등), ▲검체 채취(선별진료소 등), ▲긴급대응반 참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됨
 - * 추가업무활동장려금(12만 원/일), 기타비용(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 광역시 10만 원, 시도 9만 원/일) 등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중보건역사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함
 - * 이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등 명단에 대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행한 조치임
-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2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2명) 등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의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기술·장비 지원을 받아 진행할 계획
 - * 주요 조사내용은 신도 등 명단, 교회 등 시설 정보, 예배별 출석 기록 등임
 - * 이를 통해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임

●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원) 연장 및 대응 계획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일)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함
 - *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 * 긴급보육: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 *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함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연간 최대 10일)
 -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 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
-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일)까지 휴관연장 권고 결정.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고려하여 돌봄공백 최소화하도록 선정,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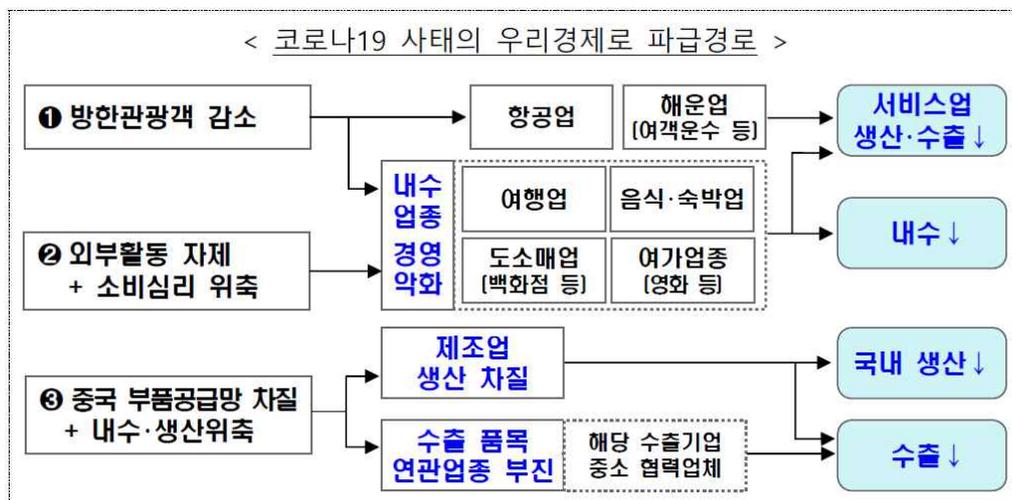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5종)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 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초·중·고 개학 연기와 같은 맥락에서 취하는 조치임
 - *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
 -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
 - *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임

코로나19 관련 주요 경제 지원 정책 동향(중국, 한국)

- (중국코로나19 확산영향) 코로나19는 중국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로 발발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와 산업활동 위축은 중국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수입수요 충격에 따라 중국 내 여객 수와 항공편(항공운송, 여객기)대폭 감소 → **한국 내 중국 여행객 감소, 항공운송 산업(화학제품, 약품, 하이테크 상품) 수입/공급 감소**
 - ※ 가정용 생활용품, 하이테크제품(스마트폰, VR헤드셋, 게임기), 방직제품의 경우 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2018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춘절연휴 연장(1.24~30 → 2.9일) 등에 따른 공장 가동 중지 및 가동률 저하로 특히 중국 생산 중간재(부품) 부족 현상 발생 → **국내 생산라인 공급체인 악화**
 - ※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중간재화(intermediate goods)의 공급의 의존도는 28.4%으로 높은 수준임 (베트남 41.6%, 전세계 필리핀 3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으로부터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 발생 지속 가능성 존재(기획재정부)
 - 대중 일평균수출(전년동기비, %) : ('19년) △11.2 ('20.1월)△0.3 (2.1~20일) △22.3 (기획재정부)
 - 최근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 제기, 중국의 우리경제 영향력 확대 등 감안시 파급영향 확대 가능성
- (국내코로나19 확산영향)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한 2.19일 기점으로 한국 경제활동 및 심리 위축 및 소비행태 변화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전국적 급증함에 따라 전국민 외부경제활동 급감, 소비자 심리 위축
 - (소비위축) 외부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백화점 등의 매출 감소세 지속
 - 전년동기대비 음식점 △14.2%(2.3주), 백화점매출 △20.6%(2.3주), 숙박업 △24.5%(2.3주) 감소
 - (심리위축) 소비자심리 및 기업심리도 2월 들어 크게 위축
 - CSI : ('20.1) 104.2 ('20.2) 96.9으로 7.3p 감소(메르스이후 최대감소), 제조업BSI : ('20.1) 76 (2) 65으로 11p 감소
 - (소비행태변화) 실내 소비 패턴 중심으로 온라인쇼핑·편의점 등 매출 증가세 지속
 - 전년동기대비 온라인쇼핑 매출액 14.%(2.3주) 증가



○ **코로나19 확산의 경제 악영향 감소를 위한 중국의 경제 지원정책 동향(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중국 상무부는 2월 18일 코로나19 경제적 악영향 대응을 위해 “대외무역 안정과 소비촉진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 발표.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를 안정시키고 코로나19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본 조치는 △대외무역과 외자 기업의 업무복귀와 조업재개 지원, △외자무역관리제도 간소화, △기술무역 등록심사에서의 무서류화 행정 추진, △수출신용보험 강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심화,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혜택 활용 장려, △ 대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새로운 소비 잠재력 발굴 등 20가지 조치 포함

(감세지원)	중국정부는 공익기부 기업·중요 물자 공급기업·방역물품 생산기업·감염병 손실 입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포함한 12가지 감세 및 면세 정책을 실시 · 이번 조치에 국가세무국은 ‘사스’ 때보다 더 강력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간의 공익기부 장려, △사회조직 및 중점 물자 생산 기업과 개인에 대해 세금 공제,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사업·필수생활물자 배송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피해손실이 큰 기업에 대한 결산연도 연장, △온라인 비접촉식 간소화 행정절차 시행 등
(금융지원)	중국인민은행은 코로나19로 단기적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 정책 수행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 ·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1년만기)를 3.25%에서 3.15%로 인하. 중국인민은행은 2월 20일부터 대출우대금리(LPR)도 4.15%에서 4.05%로 0.1%p 인하(1년 만기)할 예정 ·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 상환 임시 연장, 재대출 지원. 영세기업 대상 신용대출 확대. 개인사업자 부담 직원들의 3대 보험료(양로, 실업, 산재 보험) 감면
(무역지원)	조업재개중국 상무부는 공급사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외무역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 하여 조업 재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유지 필요성 강조(2.23.).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받는 충격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발표(2.25.). · 무역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수출신용보험 범위 확대 및 맞춤형 전문 서비스. 수출신용보험료 인하

○ **대한민국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기획재정부 2020.2.28.)**

- 경제 비상사국이라는 인식하에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 투구
- **(1차 대책)** 선제방역·특별 방역 지원을 통해 피해극복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 업종·분야별 긴급대책지원**
 - 방역대응체계 구축, 검역 등에 기정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 중. 예비비 1,092억원 편성(2.18, 1,041억원/2.25, 51억원)
 - ※ 1339 콜센터 인력/대응팀 등 방역체계 확충 41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원, 선별진료소/입원시설 운영 313억원, 방역 및 홍보 강화 237억원, 생활지원비 지원 153억원
 - 지자체 예비비 등 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액 300억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 공급 2조원 등
- **(2차 대책)**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행정부·금융기관 정책 동시 지원체계 구축**
 - **(행정부 정책)** 5대 소비쿠폰(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가족돌봄 휴가제 긴급지원, 임대료 인하 지원 3중세트, 세액공제(소득공제율 증대,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 **(금융기관정책)**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공공기관 투자,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관광업·식품외식업·항공업·해운업·자동차부품)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 큰 틀〉

대책 및 규모		주요 내용
1차	既 조치 : 약 4조원 * 재정 0.3, 금융 4.0	✓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등 ✓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0.3조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0.2조원) 등
	이번 대책 행정부 : 약 7조원 * 재정 2.8, 세제 1.7, 금융 2.5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수감 1.7조원) ✓ 소상공인 조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원)
2차	공공·금융기관 등 : 약 9조원 * 한은 5.0, 공공기관 0.5, 금융 3.7	✓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3차	추경 : α조원	✓ 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코로나19 확진자 438명 추가 총 5766명… 서울 누적 확진자 100명 넘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76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0시와 비교하면 438명이 늘었다.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전날 47명이 늘어 88명이 됐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총 36명이다. 지역별 새 확진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407명으로 대구가 320명, 경북이 87명이다. 서울은 4명, 광주 1명, 대전 1명, 경기 9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4명, 경남 9명, 제주 1명이 하루 새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도 100명을 넘어섰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51027001&code=940601)

● 서울도 25개 자치구 다 뚫리나..전문가 "현 상황, 빙산의 일각"

서울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으면서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들은 모두 뚫렸다. 특히 집단감염이 아니라 산발적 감염 사례가 서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전체 확진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여서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일축하며 산발적 감염사례에 의한 확진자 역학조사, 동선파악, 자가격리자에 의한 2차 감염 등을 면면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확진자 105명 가운데 중국 우한 등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은 15명, 신천지, 대구 등 타 지역 접촉력 등이 있는 사람은 16명이었다. 나머지 74명은 해외여행 이력도, 확진자와의 접촉력도 없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로 분류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시의 급격한 증가세가 없을 것이란 전망은) 확진 편향이자 선택 편향인데 이는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안보이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전망이 맞았다면 확진자가 105명까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에 가지 않고 검사도 안받은 환자도 있고, 자가격리자에 의한 2차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라지만,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v.daum.net/v/20200305131540829>)

● 기저질환 없는 첫 사망자 나왔다… 방역당국 긴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폐렴이 직접 사인인 첫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33번째 사망자의 직접적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라고 밝혔다. 33번째 사망자 A씨는 67세 여성으로 지난달 25일 기침과 오한 증세를 보여 대구가톨릭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에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확진자였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거점인 이탈리아에서도 기저질환이 없는 61세 사망자와 50대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375&code=11132000&cp=nv/>)

●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규모는 역대 추경예산안 중 네 번째로 크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경기종합대책 등을 포함하면 총 31조6000억원의 재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출처 : 경향비즈(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2141005&code=920100)

● [사설] 11.7조 코로나 추경,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책 강화해야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심의, 의결했다. 앞선 두차례 지원 규모까지 보태면, 코로나 사태 해결에 모두 30여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코로나 추경’은 방역 빈틈을 없애고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민생·고용 안정에 가장 많은 3조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계층과 아이돌봄에 현금 복지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보험설계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은 대책에서 소외됐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 휴업수당, 영업손실 보전, 현금 지원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OECD도 “코로나 영향이 큰 국가는 현금이전을 통한 가계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비상시국을 이겨내기 위한 더욱 비상한 대책, 더 진력을 다하는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2038025&code=990101)

● 정 총리 “마스크 전산시스템 통해 중복판매 방지…수출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마스크를 의료·방역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 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수출량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정 총리는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업자가 1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6일)부터 시행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내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5500014>)



● "마스크 써서 호흡곤란? 그럴 땐 벗으세요...증상 악화시킬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너도나도 마스크를 찾고 있지만 호흡기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썼다가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폐 질환 등 지병을 앓는 이들은 의사와 상의해 본인 상태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인은 면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했지만, 기저질환자와 건강 취약계층(노인·어린이·임신부·만성질환자 등)에게는 여전히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N95(의료용), KF84, KF80과 같은 마스크는 상당히 호흡을 어렵게 만든다"며 "호흡기 기능이 안 좋은 분들, 특히 만성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증이 생기면 바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192100017?input=1195m>)

● 'MB필터' 동나 마스크 생산 중단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중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를 위한 핵심소재인 멜트블론(MB) 필터가 부족해 최악의 경우 국내 마스크 공장의 연쇄 가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마스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공장마저 가동이 중단될 경우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크용 필터 부족 현상은 마스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MB 필터 물량마저 최근 들어 급감하면서 국내 MB 필터 수급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1Z020LKE8A>)



● 문 대통령 "경증환자 위해 가능한 모든 시설 생활치료센터 사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지는 대구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시설을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주말까지 2천명의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대구시 등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124300001?input=1195m>)

● 일부 생활치료센터 주민 반발...이기주의? 소통 부족?

상태가 심각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강구한 것이 경증환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이다. 하지만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일부 지역에선 주민 반발에 부딪혀 난항에 빠졌다. 주민들은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란 점과 생활치료센터 지정 전 주민들에게 운영계획과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해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도와 경산시는 입원 병상 확보를 위해 경증 확진자들을 수용할 곳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305001200641?did=1825m>)

● 정부, 베트남에 '신속대응팀' 파견 추진…"격리 국민 276명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 270여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속대응팀 구성 등은 마무리가 됐고, 조건이 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도록 하겠다"며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대응팀은 베트남 지역에 3개 팀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베트남 당국과 협의다. 현재 베트남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대구·경북 외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대응팀이 베트남에 파견될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어 당국과 예외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656&cID=10301&pID=10300)

● 서울대병원 운영 '달리는 중환자실(SMICU)'로 코로나 확진 중증환자 이송

서울대병원은 3일 오후 서울시 중증환자 이송 서비스(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이하 SMICU)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를 긴급 이송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처치·운전 담당 등으로 구성된 SMICU 이송팀이 담당했다. 홍기정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확진이 된 중증응급환자로 이송 중에 안전한 감염관리와 전문적인 중환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환자였다”며 “앞으로도 SMICU에 구축된 장비와 전문 의료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 감염관리지침에 따라서 중증도의 코로나 폐렴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중증환자 이송서비스는 2015년 출범해 지난해 10월 중증환자 이송 3000례를 달성한 바 있다.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00304000289>)

● "공공감염전문병원, 주치의제 도입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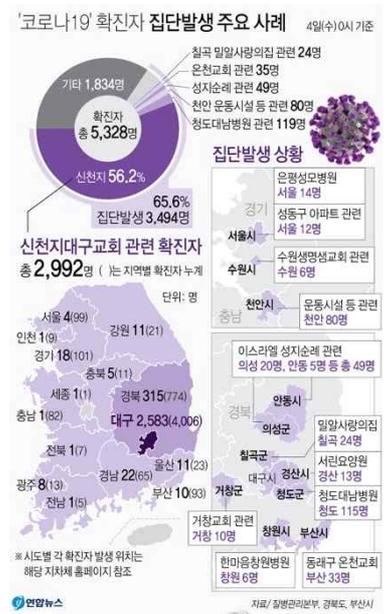
'코로나19'관련 신천지교회 신도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감염전문병원 설립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사태 확산과 향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 등 14개 의료·시민사회 단체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주치의제 준비위는 먼저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도 요구했다. 음압병실 설치비용의 경우 국가지정 병상의 경우 3억원이고 유지비용도 높아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음압병실은 민간에선 유지하기 어렵고, 공공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도 제기됐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을 앓았다. 이때문에 건강 취약 계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고가의 검사가 아니라 1차 의료에 기반을 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내일신문(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654)

● **신천지에 가려진 복병 ‘교회 밖’ 환자..“향후 국면 좌우할 불씨”**

신천지대구교회 유증상 신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제 신천지교회 밖에서 발생한 환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5일 의료계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와 명확한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수십명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규모 집단감염은 명단이 확보된 신천지교회와 달리 감염원은 물론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접촉자 관리에 한 번 더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국민개개인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당부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200300017?section=society/all>)



● **[기자의 눈]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은 예견된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매일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들 곁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현장에서 최고 전문가인 감염내과 전문의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군을 진두 지휘해야 할 장군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방역당국도 “전국적으로 가장 부족한 의료 인력이 감염내과 전문의”라고 밝힐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2015년 감염내과 전문의 수는 204명에서 2019년 275명으로 71명(3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대구·경북지역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더 심각하다. 이 지역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4,780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이 환자 400명을 치료해야 하는 셈이다. “우리들끼리는 ‘의병(醫兵)’이라고 부릅니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만 부르고, 상황이 종료되면 바로 찬밥신세가 되기 때문이죠.” 한 감염내과 전문의의 자조 섞인 말이다.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41456772636?did=NA&dtype=&dtypecode=&prnewsid>)

● **“면역력 약한데 감염되면 어찌지...” 기저질환자들 불안 극심**

코로나19로 숨진 확진환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면역질환과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의 감염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5621명이고 사망자는 35명이다.



특히 사망자 대다수는 고혈압과 당뇨, 폐렴과 만성신부전증, 치매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청도대남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에 전문가는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착각해 감염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기저질환자들이나 노인 등 취약층이 외부에 나올 필요가 없도록 마스크를 먼저 지급하고 긴급 생활지원을 한 뒤 우선 검진과 병상 우선 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1192.html)

● 마음마저 꺾아먹는 코로나19…불안·대인기피 등 상담 줄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감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상담까지 찾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1개월여 동안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각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가격리자와 일반인 요청을 받아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은 1만8천 60건에 달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 관계기관 상담까지 받으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생각이 매몰되다 보면 불안 등 증상이 커질 수 있다면서,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적절히 돌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17800004?input=1195m>)

● 코로나19 40여일, ‘불안’ 속 ‘분노’ 커졌다

4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25~28일 전국 1천명을 조사해 발표한 ‘국민 위험인식 2차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번진 지 40일 넘게 지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전반적으로 커진 가운데,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분노’를 느낀다는 이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신뢰는 높아졌지만, 청와대·언론에는 불신이 커진 현상도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두고 유 교수는 “전염병 출몰 초기와 지금의 국민 감정이 달라졌다. 사망자가 늘고,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권고한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며 느끼는 불안이 불만·불신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세심하고 차별화된 위기소통이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1147.html)

● 800억 넘게 모였지만…못 쓴 채 쌓이는 코로나 국민성금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이례적인 속도로 800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그러나 성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어 어렵게 모인 돈이 피해 지원에 제 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인 성금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탓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정부가 모금액을 어떻게 쓸지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성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큰 규모의 성금을 하는 기업에게 자가격리비용이나 의료진 지원용 등 용도를 명시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기업 성금을 최대한 활용해 지자체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1147.html)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5_0000943843&cID=10201&pID=10200)

연구동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KISTI, 코로나19 관련 국가 R&D 현황 정보 공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코로나19 관련 국가R&D 현황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상황 해제 시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적 이슈인 코로나19와 관련해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R&D' 정보를 NTIS 메인 홈페이지 중앙의 스페셜 이슈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바이러스 진단, 백신치료, 원격의료, 역학조사, 인공지능 의사, 스마트헬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된 과제, 연구자, 특허, 논문 등의 국가 R&D 현황을 각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다.

출처 :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5/202003050128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한-중 의료진, '1분 확진' 코로나 시진단기술 공동연구 착수

한국과 중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공동연구에 나선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3월 중 개발, 세계 각국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일단 코로나19의 영상 진단기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경증과 중증 폐렴 환자를 조기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진단키트는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검진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흉부CT는 코로나19 폐렴의 중증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00242466400>)

국제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이란 코로나19 발병 2주만에 확진 3천명 육박...사망 92명

이란 보건부는 4일(현지시간) 정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86명(전날 대비 25% 증가) 더 늘어 모두 2천922명이 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5명 증가해 지금까지 92명이 숨졌다. 이란에서 지난달 19일 첫 확진·사망자가 발생한 뒤 2주 만에 확진자는 3천명,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했다. 일일 사망자 수는 1일부터 나흘 연속 1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우디 정부는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과 자국 거주 외국인의 메카, 메디나 성지순례를 일시 금지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20865111?input=1195m>)

● 중국 본토 코로나19 사망자 3000명 돌파

중국 본토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5일 0시(현지시간) 기준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31명 늘어난 30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모두 바이러스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에서 나왔다.



지난달 29일 573명을 기록한 중국 본토 내 신규 확진자는 3월에 접어들며 △1일 202명 △2일 125명 △3일 119명에 이어 4일 139명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본토를 제외한 중화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홍콩 104명(사망 2명 포함) △마카오 10명 △대만 42명(사망 1명 포함) 등 총 156명이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63359>)

● 애완견도 코로나 감염...사람-동물간 전염 첫 사례되나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포메라이언 종 애완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홍콩 당국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확진환자 애완견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있었고,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격리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대학, 세계동물보건기구 등의 전문가들과 결과를 놓고 상의했는데, 만장일치로 애완견의 감염이 '낮은 수준의 감염'이며 사람과 동물간 전염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완견과 접촉한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을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0508332369078>)

● 중국 "한국에 의료물품 지원할 것...합동 방역기제 논의"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한국에 의료물자를 지원할 것이며 한국과 합동 방역 기제를 건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마차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5일 말했다. 그는 한중 양국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이 급하게 필요한 의료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국 일부 지방과 기업들은 이미 한국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에 지원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전염병 예방통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에 제공했다"면서 "양국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097600083?input=1195m>)

● IMF "코로나19로 올해 세계 성장률 작년보다 악화"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감염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리 회원국 3분의 1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더 이상 지역적 이슈가 아니다. 글로벌 대응을 요구하는 세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감염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리 회원국 3분의 1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더 이상 지역적 이슈가 아니다. 글로벌 대응을 요구하는 세계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도전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일"이라면서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2020년 세계 성장이 작년 수준 아래로 저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얼마나 떨어질 지, 얼마나 영향이 지속될 지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뿐만 아니라 정책 조치의 질, 적시성, 효과에도 달렸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1s.com/view/?id=NISX20200305_0000943216&cID=10101&pID=10100)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보호 방안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비흡연자 ⑤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연수원, 호텔 등 시설격리
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5기저질환 1개 이상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감염병 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이 떨어진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 예시2.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C)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증(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증(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호흡 등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RT, ECMO 필요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 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지자체용)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3. 4.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	02-6925-1111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877-8875
3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	02-1588-3330
4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858-0100
5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	02-950-1114
6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77-3675
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58-8114
8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	02-966-1616
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90-8114
10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912-0100
11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29-5114
12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	02-2632-0013~8
1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88-5700
1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	02-2270-0114
1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19-2114
16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	02-1544-7522
1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25-1111
18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440-8114
1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1522-7000
20	광진구	혜민병원	외래	02-2049-9000
21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26-1114
22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	02-970-8000
23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	02-970-2114
24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01-3114
25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6299-1114
26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70-2114
2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99-1004
28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	02-396-9161
29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88-1511
30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20-5114
31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50-5114
32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	02-2604-7551
33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	1811-8114
34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709-9114
35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	02-353-5511~9
36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01-2001
37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	02-2002-8000
38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	02-737-0181
39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60-7114
40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	02-437-5011
41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	02-490-2000
총합	21개 자치구	41개소	외래 20개소, 외래, 입원, 선별진료21개소	-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27)	좋은문화병원, 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좋은삼선병원, 삼육부산병원, 좋은강안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영도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세웅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부산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 구포성심병원, 부산대학교병원*, BHS한서병원, 부산선팀병원, 에스병원, 오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18)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나은병원*, 검단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기독병원, 비에스종합병원, 더드림병원, 길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뉴성민병원, 온누리병원, 나사렛국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드림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시티병원, 천주성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푸른병원
광주(2)	전남대학교병원*, 서광병원
대전(6)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울산(7)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울산시티병원, 21세기좋은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동강병원 명지병원*, 자인메디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바른마디병원, 이춘택병원, 센트럴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메디인병원, 박애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원광종합병원, 남양디에스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지샘병원, 히즈메디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바른세상병원, 서울나우병원, 정병원*, 지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동수원병원, 월스기념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단원병원, 사랑의병원, 안성성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평촌서울나우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오산한국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백병원, 성베드로병원, 이천엘리아병원, 평택굿모닝병원*, 박병원*, 하남SD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강원(4)	강릉아산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8)	한국병원,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진천성모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남(11)	백제병원, 천안충무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아산충무병원*, 현대병원, 예산종합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우리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전북(8)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순천한국병원*, 장흥종합병원, 고흥종합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경북(12)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상주성모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좋은선린병원 거봉백병원, 맑은샘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 갑을장유병원, 김해복음병원, 진영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바른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청아병원, 365병원, 마산서울병원, CNA서울아동병원, 연세에스병원
제주(4)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총합	15시도 212개소

별(*)표시 기관은 오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4)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3]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7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02-3410-2114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9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2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	02-1577-0083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3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4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5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6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0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2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5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6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7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2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8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3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69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4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0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5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1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36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3)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